여행하는 조선 책방 홍보물 캡처

옛 책을 보고 느끼다

완판본문화관 '여행하는 조선 책방'
신나는 예술여행 시각순화부문 선정
총 10회 전국 순회처 선정 '예술여행'

완판본문화관(관장 안준영)에서 운영하는 대장경문화학교의 '여행하는 조선 책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 신나는 예술여행의 시각순회부문(사업비 1억원)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예술단체가 지역 곳곳에 직접 찾아가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시각순회의 특징과 주제의식을 반영한 전문 문화예술단체 6팀이 선정됐다.

'여행하는 조선 책방'은 목판, 옛 책 등 작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전시, 전통 판각 시연, 타악, 핸드팬 등 두드림으로 완성되는 콜라보레이션 공연, 목판을 새기는 각수(刻手)의 강연,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의 토크쇼, 책 관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에 '조선 책방'이라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을 전시로 재현하고,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책과 관련된 특색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총 10회 전국 순회처를 선정해 예술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안준영 관장은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만남과 이야기들이 있다"며 "'여행하는 조선 책방'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호흡하며 기록문화유산인 완판본의 가치와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술테마박물관, 문체부 동아리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동아리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거점 지역주민 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전라문화교육협회와 공동주관하는 올해 사업은 관내 장애우, 편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미술·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전라문화교육협회(T.229-2019)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위로'… 한예종, 온라인 연주회

'k-arts 희망콘서트', 예술 재능기부 뜻 가진 30명 우선 선정 5~10분 내 영상 제작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젊은 예술가들의 연주회가 온라인에서 펼쳐진다. 공연 취소로 설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봉렬)는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arts 희망콘서트'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예종의 음악·무용·전통예술 교수들과 이를 전공하는 학생, 졸업한 신진예술가 가운데 예술 재능 기부에 뜻을 가진 30명을 우선 선정했다. 5~10분 내 공연 영상으로 제작,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클래식 독주,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 대금 등 국악 독주, 그리고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무용으로 각각 구성된다.

한예종은 예술로 재능 기부를 밝힌 교수·학생들의 영상을 제작해 1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2편씩 학교 홈페이지를 비롯 학교 홍보 영상 채널로 운영중인 네이버TV의 '한예종 예술극장'과 유튜브 'K-Arts TV'에 업로드할 계획이다.

11일 가야금 명인 김해숙 교수와 유경화 교수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연주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영상 30편이 온라인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와함께 한예종 출신 영화 감독들의 단편영화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1일 1편씩 노출할 예정이다.

특히 한예종은 27일 오후 7시 30분 서초캠퍼스 이강숙홀에서 음악원이 주관하는 '베토벤 250th 스텀 앤드 드래그(Sturm und Drang)'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의 첫 번째 콘서트를 네이버TV와 V라이브의 '한예종 예술극장'을 통해 120분간 동시 생중계한다.

이날 공연 생중계는 코로나19로 각종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예술 향유의 기회를 잃어버린 국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관객들의 감염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무관객 상태로 공연한다.

김대진 음악원장과 손민수·이진상 교수, 최성진 강사를 사사하고 있는 김지훈, 이현지, 정규빈, 한민정 등 4명의 피아니스트가 출연한다.

김봉렬 한예종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예술로 작은 힘을 보태고자 온라인 연주회를 기획,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범정부 캠페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동참을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의 재능 기부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악 좋아하는 꿈나무들 모여라~'

순창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청소년 단원 모집

순창군이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의 신규 단원 20여명을 모집한다.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는 2017년 6월, 순창군과 전북도립국악원,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이 뜻을 모아 평소 전통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순창군 청소년을 위해 창단했다.

오케스트라단은 창단 이후 실력향상을 위해 예술캠프를 통하여 복지시설을 방문,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순창장류축제 당시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의 식전공연에도 나섰다.

이뿐 아니라 민속마을 토굴 음악회, 창단연주회, 정기연주회 등도 개최하며 청소년들의 잠재되어 있는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전통예술의 발전과 지역공동체가 하나 되는 예술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가야금, 거문고, 해금, 판소리 등 국악악기 전반이며, 국악에 관심 있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원이 되고 싶은 청소년은 오는 19일까지 해당학교 교무실이나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오는 23일 청소년수련관에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원에게는 악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택시와 승합차를 임차해 교통편의도 제공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단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063-652-13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대에서 협연을 하고 있는 순창 청소년 무지개 국악오케스트라 단원들.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무료 구독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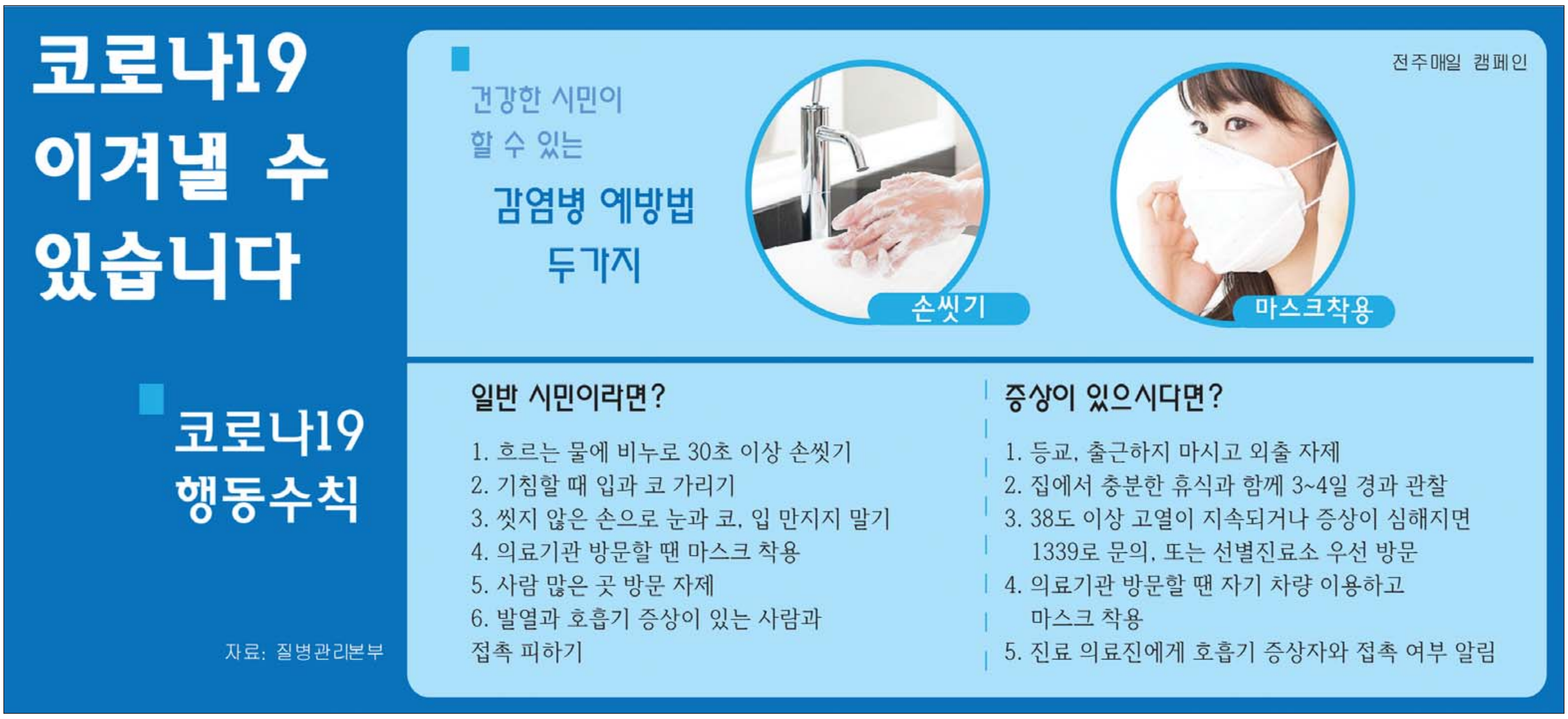
독서플랫폼 밀리의 서재

월정액 독서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게 두달 간 무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밀리의 서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이 서비스를 무상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밀리의 서재는 각 분야 베스트셀러와 장르도서를 포함한 전자책, 오디오북, 챗북(채팅 형태로 도서를 요약한 콘텐츠) 등 5만권 이상의 콘텐츠를 월 정액 방식으로 무제한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은 이용을 원할 경우 개별 QR코드 및 자가격리앱을 통하면 된다.

확진자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통해 별도 제공되는 QR코드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해 밀리의 서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서영택 밀리의 서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독서가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